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Effects of Maternal Economic Stres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1차원고접수: 2023.01.10. 수정원고접수: 2023.02.25. 최종게재결정: 2023.03.08.

한유경¹ · 신나나²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²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Han, Yookyung¹

Shin, Nana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간접적인 영향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부부갈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각각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우울과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 특히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 문제행동의 예방 혹은 감소를 위해서는 부부관계 및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환경적인 변인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긍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erceptions of economic stres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and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491 mothers of 3- to 5-year-old preschool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mother's report. Using SPSS 21.0 and AMOS 23.0,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ternal economic stress did not directly affec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Second, maternal economic stress had an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and through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rough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economic stress that mothers recognized had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ur study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ternal depression i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programs to preven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eywords *maternal economic stress,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 본 논문은 한유경의 박사학위논문(2022)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신나나 (Shin, Nana)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nanashin@ewh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는 인지,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유아는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행동도 빈번하게 관찰되는데(Lutz, Fantuzzo, & McDermott, 2002),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에서는 전체 유아의 3~4% 정도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사회적 규범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능력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등을 포함하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을 포함한다. 유아기에 발생하는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이 시기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이후 발달단계까지 지속되며(신정아, 황혜원, 2006; Loeber & Farrington, 2000), 학령기의 학업성취와 적응, 청소년기의 비행 및 행동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Campbell, 1995; Kaiser & Rasminsky, 2003). 따라서 이 시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방적 중재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Conger, Conger와 Martin (2010)이 제안한 ‘가족 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과 부부 변인 및 양육 관련 변인을 통해 자녀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 등과 같은 객관적 측면 대신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30대 전후 연령

의 MZ세대로(통계청, 2019), SNS를 통해 소통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측면, 부부 변인 및 양육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심리적 건강과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어머니의 우울(Cummings & Davies, 1994), 부부갈등(Schoppe-Sullivan, Schermerhorn, & Cummings, 2007), 양육행동(Jackson, Choi, & Preston, 2019)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양육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격려와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애정적이고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김연지, 2022), 사회성(채진영, 이강이, 2009)을 높일 뿐 아니라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춘다는 점(김은경, 2013; 류관열, 2014)에 기반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와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이나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더 지각할수록 자녀가 정서조절능력(임진화, 2019)이 낮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Leininger & Kalil, 2014)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경제적인 박탈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성이 낮았으며(김광혁, 2014), 가정의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인 박탈을 경험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김선희, 2017; Bøe, Hysing, & Zachrisson, 2016; Bor et al., 1997; Kiernan & Huerta, 2008). 그러나 가정의 빈곤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해(오정윤, 2016),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필요하다.

각각의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및 생리적인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Beck, 1967). 우울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수록 유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였다고(이소현, 2018; Elgar, McGrath, Waschbusch, Stewart, & Curtis, 2004).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친 영향(조미영, 1999)이나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친 영향(김미정, 2010)을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통해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실제 관계 내에서 지지를 감소시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Barton & Bryant, 2016; Bodenmann et al., 2007). 관련 연구들에서도, 경제적인 요인은 결혼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Spuhler & Dew, 2019),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은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bila & Krishnakumar, 2006). 부부갈등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자녀 양육기 동안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유아가 문제행동을 더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형민, 2015; Amato, 2010; Rhoades, 2008)과 위축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mato,

2010; Rhoades, 2008). 특히 유아기는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가족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더 크게 경험하고 이를 다루거나 조절하는 능력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Grych, 1998), 가족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경제적 스트레스나 부부갈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적인 불안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2010).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온정이나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Gonzales et al., 2011), 지지적인 양육행동과 자율성 부여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uff & Renk, 2014).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이정미, 양명숙, 2006),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깊이 개입하는 유아기에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Amato & Fowler, 2002).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방식(김은경, 2013)으로 혹은 자율적인 방식(류관열, 2014)으로 양육할수록 유아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을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김연지, 2022), 사회성(채진영, 이강이, 200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우울할 경우 부부 사이의 역할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며 부부갈등 수준은 더 높았다(박주연, 2020; Whisman, 2001).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가 우울할

수록 자녀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Galbally & Lewis,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들 간 경로를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Emme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어머니가 심리적 고통을 더 겪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Roper, George, Nelson, Yorgason과 Poulsen의 연구(2016)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더 많은 부부갈등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여 유아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외에도 유아기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도 포함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Robila와 Krishnakumar(2006)는 경제적 압박이 부부관계와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만 5~17세 자녀가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불안은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정적인 부부관계 및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김미정, 김영희, 2011). 또한 유아는 아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진이, 2009)에서도 경제적인 압박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우울, 부부갈등 및 부모의 부정적인 부모 역할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정서적 고통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부간의 문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게 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연구

변인 각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가구 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인 욕구 소득비와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아의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낮았으며(임진화, 2019),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강보민, 2020). 또한 빈곤 가족일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이었으며(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유아는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김선희, 2017).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의 차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가정의 경제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임진화, 2019), 경제적 압박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Roper et al., 2016),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이 오히려 높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연구(어주경, 1998)가 혼재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정태연, 노현정, 2005),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선, 2011)도 있어 그 결과가 비일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종합하면, 본 연구는 Conger 등(2010)의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외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아동과 청소년에 미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인으로 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제한점이 있다(김진이, 2009; 송신영, 2007). 따라서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김광혁, 2014; Brooks-Gunn & Duncan, 1997)으로 보고된 유아기를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영향이 큰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머니로, 유아의 어머니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240명(48.9%), 여아가 251명(51.1%)이었으며, 연령은 3세가 152명(31.0%), 4세가 167명(34.0%),

5세가 172명(35.0%)이었다. 출생순위로는 외동인 경우가 171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인 경우 134명(27.3%), 둘째인 경우 149명(30.3%), 셋째 이상인 경우 37명(7.5%)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6세($SD = 4.26$)였으며, 이를 범주로 구분해 보았을 때 36~40세가 208명(42.4%), 31~35세가 154명(31.4%)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272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인 경우가 111명(22.6%)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인 경우가 242명(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무직 종사자, 보안 업무 종사자가 90명(12.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49인 이하 회사의 관리직 68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642,769원($SD = 194.49$ 만원)이었으며, 총 가구원수는 4명이 226가구(46.0%)로 가장 많았고, 3명이 188가구(38.3%), 5명이 56가구(11.4%)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을용(2002)이 구성한 재무스트레스 척도를 신효연(201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지출 스트레스(7문항), 자산 스트레스(5문항), 소득 스트레스(5문항), 부채 스트레스(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지출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등의 문항이, 자산 스트레스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 불안하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 ‘소득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현재 가계 소득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어렵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부채 스트레스는 ‘우리 가계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은행 또는 회사의 대출금이 부담스럽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평

소 자신이 가정에서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지출 스트레스 .94, 자산 스트레스 .89, 소득 스트레스 .88, 부채 스트레스 .87이었다.

2)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제작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 검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8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대인관계(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우울정서의 경우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이, 긍정적 정서는 '행복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우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슬픔을 느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게(0점)에서 거의 대부분(3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우울정서 .90, 긍정적 정서 .80, 대인관계 .86,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80이었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최규련(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경희(1998)가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적 갈등영역(9문항),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9

문항), 공동생활 갈등영역(4문항), 제3자 갈등영역(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개인적 갈등영역의 경우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견해를 배우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등이 있으며,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의 경우 '나와 배우자는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다.', '배우자는 가족의 공동관심사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공동생활 갈등영역은 '금전관리 및 소비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가사노동 분담 등 역할에서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제3자 갈등영역의 경우 '친척 및 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도록 방향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 한 후 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개인적 갈등영역 .80,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 .85, 공동생활 갈등영역 .80, 제3자 갈등영역 .78이었다.

4)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박주희(2001)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온정·격려(11문항)와 한계설정(8문항)의 두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였지만, 적대적 양육행동의 경우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소득 수준과 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김진이(2011)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살펴보면 온정·격려의 경우 '아이가 하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스스로 해보게 한다.', '아이가 하는 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준다.’ 등이 있으며, 한계설정의 경우 ‘아이가 한 곳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한다.’, ‘아이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온정 · 격려 .86, 한계설정 .76이었다.

5)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가척도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 행동평가 척도 부모용(K-CBCL;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중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 위축(8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주의 집중 문제(5문항)와 공격행동(1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에 당황한다.’, ‘안절부절 못한다.’ 등이 있으며, 불안/우울의 경우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등이 있으며, 신체증상의 경우 ‘설사를 한다.’, ‘잘 먹지 않는다.’ 등이 있다. 위축의 경우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피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 집중 문제의 경우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공격행동의 경우 ‘반항적이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지난 2개월 내에 자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 .92, 외현화 문제행동 .91이었다.

6)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연구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중 가구소득,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아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욕구 소득비를 산출하여 통제하였는데, 욕구 소득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을 뜻한다. 욕구 소득비를 구한 후, 0인 경우는 빈곤 집단($N = 75$)으로, 1이상일 경우에는 비빈곤 집단($N = 416$)으로 범주화하였다(김광혁, 2012).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비취업모(0으로 범주화; $N = 237$)와 취업모(1로 범주화; $N = 254$)로 분류하였으며, 유아의 성별의 경우 남아는 240명(0으로 범주화), 여아는 251명(1로 범주화)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일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하여 10월 중 약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기관의 패널 중 만 3~5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설문이 공지되었으며, 부부 관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를 실시하는 목적 및 연구와 관련한 정보들을 포함한 연구참여 설명서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리서치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한 대상자에게 사례가 지급되었다. 총 518명의 자료 중 해당 연령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26사례), 불성실한 응답(1사례)을 제외한 총 4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산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둘째, 왜도와 첨도를 통해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셋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통해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

석 시 가구의 욕구 소득비,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 개별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의 변수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본 분석에 앞서 왜도 및 첨도를 통해 각 변인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 모두 왜도가 3미만, 첨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긍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4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65***	-														
3	.67***	.76***	-													
4	.58***	.62***	.63***	-												
5	.38***	.39***	.39***	.33***	-											
6	-.24***	-.37***	-.35***	-.23***	-.38***	-										
7	.36***	.32***	.37***	.27***	.75***	-.28***	-									
8	.33***	.31***	.32***	.24***	.78***	-.29***	.79***	-								
9	.29***	.28***	.32***	.26***	.48***	-.46***	.38***	.42***	-							
10	.28***	.30***	.29***	.26***	.45***	-.47***	.42***	.41***	.80***	-						
11	.46***	.45***	.45***	.38***	.51***	-.37***	.41***	.40***	.66***	.66***	-					
12	.39***	.37***	.35***	.32***	.47***	-.28***	.42***	.40***	.60***	.61***	.72***	-				
13	-.19***	-.12**	-.12**	-.05	-.15**	.30***	-.21***	-.16***	-.20***	-.22***	-.15**	-.18***	-			
14	-.08***	-.12*	-.02	-.03	-.09	.18***	-.10*	-.11*	-.13**	-.17***	-.12**	-.06	.40***	-		
15	.26***	.21***	.28***	.21***	.40***	-.14**	.44***	.39***	-.28***	.26***	.29***	.29***	-.27***	-.15**	-	
16	.28***	.23***	.29***	.21***	.36***	-.16**	.37***	.34***	.29***	.29***	.31***	.31***	-.28***	-.18***	.81***	-
M	2.07	3.17	2.66	2.57	0.84	1.78	0.52	0.70	2.64	2.58	2.48	2.32	3.81	3.51	1.26	1.35
SD	0.87	0.98	1.02	1.09	0.66	0.67	0.67	0.68	0.66	0.75	0.93	0.87	0.53	0.58	0.25	0.31

주. 1. 지출 스트레스, 2. 자산 스트레스, 3. 소득 스트레스, 4. 부채 스트레스, 5. 우울정서, 6. 긍정적 정서, 7. 대인관계, 8.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9. 개인적 갈등, 10. 부부 관계 갈등, 11. 공동생활 갈등, 12. 제3자 갈등, 13. 온정·격려, 14. 한계설정, 15. 내재화 문제행동, 16. 외현화 문제행동

* $p < .05$. ** $p < .01$. *** $p < .001$.

(표 1 참조), 경제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채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격려와 한계설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중 긍정적 정서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 한 후 모델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38.776(df = 93, p < .001)$, $\chi^2/df = 3.643$, TLI = .932, CFI = .947, RMSEA = .073(90% CI [.065, .082])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38~.92로 나타나,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0 이상일 경우 적절하다고 한 기준(Crocker & Algina, 1986)을 충족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앞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욕구 소득비, 취업 유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욕구 소득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모형에서 욕구 소득비는 모든 변인에,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517.217(df = 119, p < .001)$, $\chi^2/df = 4.346$, TLI = .894, CFI = .917, RMSEA = .083(90% CI [.074, .089])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정지수가 높고(MI = 52.19), 또한 같은 척도에 포함된 부부갈등의 두 하위요인인 개인적 갈등영역과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간 오차항을 연결한 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405.103(df = 118, p < .001)$, $\chi^2/df = 3.433$, TLI = .923, CFI = .940, RMSEA = .070(90% CI [.063, .078])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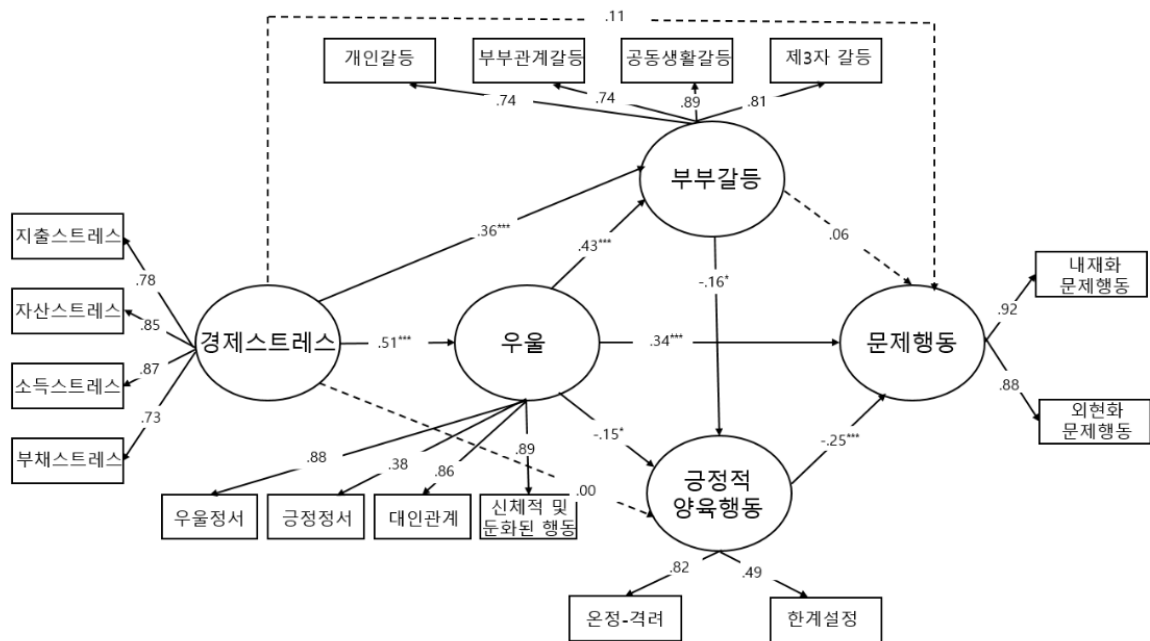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2, 그림 1 참조).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beta = .51, p < .001$)과 부부갈등($\beta = .36,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더 높게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91)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경제적 스트레스 → 어머니 우울	.44	.51	.04	9.88***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26	.36	.04	6.74***
경제적 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00	.00	.05	.05
경제적 스트레스 → 문제행동	.04	.11	.02	1.90
어머니 우울 → 부부갈등	.36	.43	.04	8.36***
어머니 우울 → 긍정적 양육행동	-.11	-.15	.06	-2.01*
어머니 우울 → 문제행동	.14	.34	.02	5.61***
부부갈등 → 긍정적 양육행동	-.14	-.16	.07	-1.97*
부부갈등 → 문제행동	.03	.06	.03	.93
긍정적 양육행동 → 문제행동	-.13	-.25	.04	-3.39***

* $p < .05$. *** $p < .001$.



- 주. 1.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 추정치(β)임.
 2. 모형의 간결성을 위하여 통제변인은 표시하지 않았음.
 3. 우울의 하위요인 중 긍정정서는 역코딩하여 투입하였음.
 $^*p < .05$. $^{***}p < .001$.

그림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양육행동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beta = .43, p < .001$)과 긍정적인 양육행동($\beta = -.15, p < .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일수록 부부 사이에 갈등을 더 경험하였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4, p < .001$),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beta = -.16, p < .05$),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덜 보였다. 하지만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beta = -.25, p < .001$), 어머니가 온정·격려와 한계설정이 높은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7, p < .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 각각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b = .06, p < .05$)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부부갈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b = .01, p < .01$)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b = .01, p < .05$)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31.7%,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경제 스트레스, 우울 및 부부갈등에 의해 8.1%,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에 의해 45.9%, 어머니의 우울은 경제적 스트레스에 의해

표 3.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491)

잠재변인 간의 경로	간접효과(b)	p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문제행동	.06	.012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 문제행동	.01	.320
경제적 스트레스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0	.982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부부갈등 → 문제행동	.01	.296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1	.059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1	.009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부부갈등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0	.015

24.2% 설명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제적 불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김미정(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부담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Leininger와 Kalil(201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이나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

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그 결과 유아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어머니(조미영, 1999)와 아버지(김미정, 2010)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우울은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왜곡된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Beck, 1967),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Whitbeck et al., 1991).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김미량 등, 2009), 자녀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심리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지지(안정림, 2020)의 중요성을 강조해 볼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 결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Frank, Davis, & Elgar, 2014). 경제적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Baum, Garofalo, & Yali, 1999) 지속될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시적인지 만성적인지를 살펴보지는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기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

퍼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아가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이소현,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시사하며, 우울 이외에 어머니의 불안이나 수용적이지 않은 정서표현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김우경, 2012; 박찬경, 2013)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정서 관련 요인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부 간 갈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현경자,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간 의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일치를 보이고(Robila & Krishnakumar, 2006), 이로 인해 양산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부갈등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갈등에 비해 본질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요소를 포함하며 위협적이므로(Papp, Cummings, & Goeke-Morey, 2009),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건강한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였으며(Holden & Ritchie, 1991), 부부간 공격적인 행동이 5~12세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연구(Jouriles, Murphy, & O'leary, 1989)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경제적인 불안이 부부갈등

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미정, 2010)나,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이, 2009)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과 대상 자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폭력적인 아버지를 가정했으며(Holden & Ritchie, 1991), 부부갈등이 아닌 부부 간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다(Jouriles et al., 1989). 따라서 유아에게 심각하게 인식될 수준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폭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관련하여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부부갈등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아기 자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함께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여부를 함께 측정하거나, 연령에 따라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와 그로 인한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결과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Gonzales et al.,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 사회경제적인 지위 및 빈곤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선희, 2014;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과도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지표로 객관적인 가족의 소득을 변인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소

득이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집단별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일수록 유아는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을 때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보영, 2005)나, 애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했을 때, 타인과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보다 안정적으로 환경을 탐색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성혜원, 한세영, 2015)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격려를 보였을 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류관열, 2014)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생 후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유아가 이후 형성하는 타인과 관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부부갈등을 통해 온정적인 양육행동(박주연, 2020)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정미경, 김영희, 200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대인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여(Johnson & Jacob, 2000), 부부 간 갈등이 증가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Asuquo & Maliki, 2007) 부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민하영, 2010)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간접효과에서 우울을 통한 영향이 유의하여, 어머니가 경제적 스

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할 경우 가정 내 부정적 역동이 발생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생활 전반에 자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유아기에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Amato & Fowler, 2002), 유아기에 발생한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ello, Compton, Keeler, & Angold, 2003).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환경적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외에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동 또한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부부갈등은 부부의 가치관, 경험, 태도 등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이영숙, 박경란, 2011), 부부 개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빈도나 강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함께 아버지가 보고하는 부부갈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와 어머니의 보고를 통합하여 유아 관련 자료 또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모든 변인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본 연구의 방법은 변인 간 관계가 과잉 추정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과 보고자를 활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가 가정환경적인 영향력이 큰 시기이긴 하지만 최근 만 3~5세의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인과

관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및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2020년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Conger 등(2010)의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어머니 변인과 가정환경적인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주로 객관적인 소득의 영향을 살펴본 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객관적인 경제적인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의 영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부모 변인을 통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우울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부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및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민 (2020). 중년 1인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유아변인, 어머니변인, 또래관계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https://doi.org/10.22155/JFECE.23.4.385.406>
- 김광혁 (2012).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빈곤의 시간과 다양한 가족 구조. *사회과학논총*, 27(2), 41-55.
- 김광혁 (2014). 가족의 경제적 박탈이 초기 아동기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42, 7-43.
-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366-375.
<https://doi.org/10.5392/JKCA.2009.9.1.366>
- 김미정 (2010).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김영희 (2011).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9(5), 59-70.
- 김보영 (2005). 어머니 양육태도, 영아의 성,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4).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317-338.
- 김선희 (2017).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영향. *유아교육연구*, 37(5), 57-78.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5.003>
- 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유아의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77-298.
- 김연지 (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7-136. <https://doi.org/10.15842/kjcp.2009.28.1.007>
- 김우경 (2012).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 (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 역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28, 7-43.
- 김진이 (2011). 경제적 디 스트레스가 재미한국계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어머니 우울증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7, 119-143.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https://doi.org/10.5723/KJCS.2014.35.4.179>
- 류관열 (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 민하영 (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28(5), 1-12.
- 박주연 (2020).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변인과 부부변인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경 (2013).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혜원, 한세영 (201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271-292.
<https://doi.org/10.14698/jkcce.2015.11.271>
- 송신영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미,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2), 123-154.
- 신효연 (2013). 도시가계의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및 재무스트레스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림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2.011>
- 오정운 (2016). 빈곤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서비스 질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을용 (2002).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선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4.
- 이정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현 (2018).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2), 117-127.
<https://doi.org/10.21213/kjcec.2018.18.2.1>
- 이영숙, 박경란 (2011). 부부의 성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결혼기간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731-743.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형민 (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2), 119-136.
- 임진화 (2019).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적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조미영 (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채진영, 이강이 (2009).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4), 95-114.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통계청. (2019). 2019년 출생통계. 대전: 통계청.
-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

- 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https://doi.org/10.1037/0278-6133.19.6.586>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mato, P. R. (2010). Research on divorce: Continuing trend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50-66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23.x>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703.x>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suquo, P. N., & Maliki, A. E. (2007). Values orientation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Implication for marriage counselling. *Studies of Tribes and Tribals, 5*(1), 59-63.
<https://doi.org/10.1080/0972639X.2007.11886559>
- Barton, A. W., & Bryant, C. M. (2016). Financial strain, trajectories of marital processes, and African American newlyweds'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6), 657-664.
<https://doi.org/10.1037/fam0000190>
- Baum, A., Garofalo, J. P., & Yali, A. M.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stress: Does stress account for SES effects on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131-14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NY: Harper & Row.
- Bodenmann, G., Charvoz, L., Bradbury, T. N., Bertoni, A., Iafrate, R., Giuliani, C., & Behling, J. (2007). The role of stress in divorce: A three-nation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5), 707-728.
<https://doi.org/10.1177/0265407507081456>
- Bøe, T., Hysing, M., & Zachrisson, H. D. (2016). Low family income and behavior problems in Norwegian preschoolers: Is child emotionality a marker for sensitivity of influ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7*(3), 213-222.
<https://doi.org/10.1097/DBP.0000000000000282>
- Bor, W., Najman, J. M., Andersen, M. J., O'Callaghan, M., Williams, G. M., & Behrens, B. C.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amily income and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young children: An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5), 664-675.
- Bradshaw, J., & Finch, N. (2003). Overlaps in dimension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32*(4), 513-525.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https://doi.org/10.2307/1602387>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49.
<https://doi.org/10.1111/j.1469-7610.1995.tb01657.x>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25.x>
- Connell, A. M., & Goodman, S. H.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in fathers versus mothe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5), 746-773. <https://doi.org/10.1037/0033-2909.128.5.746>
- Costello, E. J., Compton S. N., Keeler G., & Angold, A. (2003). Relationships between poverty and psychopathology: A natural experiment.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0*(15), 2023-2029.
<https://doi.org/10.1001/jama.290.15.2023>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1), 73-112.
<https://doi.org/10.1111/j.1469-7610.1994.tb01133.x>
- Elgar, F. J., McGrath, P. J., Waschbusch, D. A., Stewart, S. H., & Curtis, L. J. (2004). Mutual influences o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adjustment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4), 441-459.
<https://doi.org/10.1016/j.cpr.2004.02.002>
- Emmen, R. A., Malda, M., Mesman, J., van IJzendoorn, M. H., Prevoe, M. J., & Yenzi, N. (2013).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ethnic minority families: Testing a minority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6), 896-904.
<https://doi.org/10.1037/a0034693>
- Frank, C., Davis, C. G., & Elgar, F. J. (2014). Financial strain,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health during eco-

- conomic recession: A longitudinal survey in rural Canada. *Anxiety, Stress & Coping*, 27(4), 422-438.
<https://doi.org/10.1080/10615806.2013.864389>
- Galbally, M., & Lewis, A. J. (2017). Depression and parenting: The need for improved intervention model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5, 61-65.
<https://doi.org/10.1016/j.copsyc.2017.02.008>
- Gonzales, N. A., Coxe, S., Roosa, M. W., White, R. M. B., Knight, G. P., Zeiders, K. H., & Saenz, D. (2011). Economic hardship, neighborhood context, and parenting: Prospective effects on Mexican-American adolescent's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7(1-2), 98-113.
<https://doi.org/10.1007/s10464-010-9366-1>
- Gottman, J. M. (1990). How marriages change. In G. R. Patterson (Ed.),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pp. 75-9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doi.org/10.1007/s10464-010-9366-1>
- Grych, J. H. (1998).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Situatio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3), 437-453.
<https://doi.org/10.1037/0893-3200.12.3.437>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2), 311-32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1.tb01533.x>
- Jackson, A. P., Choi, J. K., & Preston, K. S. (2019). Harsh parenting and black boys' behavior problems: Singl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68(4), 436-449.
<https://doi.org/10.1111/fare.12373>
- Johnson, S. L., & Jacob, T. (2000). Sequential interactions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of depressed men an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1), 4-12. <https://doi.org/10.1037/0022-006X.68.1.4>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453-455. <https://doi.org/10.1037/0022-006X.57.3.453>
- Kaiser, B., & Rasminsky, J. S. (2003). Opening the culture door. *Young Children*, 58(4), 53-56.
- Kiernan, K. E., & Huerta, C. M. (2008). Economic deprivation, maternal depression, parenting and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4), 783-806.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19-734.
<https://doi.org/10.1037//0012-1649.38.5.719>
- Leininger, L., & Kalil, A. (2014). Economic strain and children's behavior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5), 998-1010.
<https://doi.org/10.1111/jomf.12140>
- Loeber, R., & Farrington, D. P. (2000). Young children who commit crime: Epidemiology, developmental origins, risk factors, early interven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737-762.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4107>
- Lutz, M. N., Fantuzzo, J., & McDermott, P. (2002).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problems of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3), 338-355.
[https://doi.org/10.1016/S0885-2006\(02\)00168-0](https://doi.org/10.1016/S0885-2006(02)00168-0)
- Papp, L. M., Cummings, E. M., & Goeke-Morey, M. C. (2009). For richer, for poorer: Money as a topic of marital conflict in the home. *Family Relations*, 58(1), 91-103.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8.00537.x>
- Puff, J., & Renk. (2014).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6), 712-727.
<https://doi.org/10.1007/s10578-014-0440-z>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52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hoades, K. A. (2008).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6), 1942-195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8.01235.x>
- Robila, M., & Krishnakumar, A. (2006). Economic pressure and children's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4), 435-443.
<https://doi.org/10.1007/s10826-006-9053-x>
- Roper, S. O., George, J. G., Nelson, L. J., Yorgason, J. B., & Poulsen, F. O. (2016). Economic pressure, individual and family processes, and children's reticence in Romani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8), 2458-2468.
<https://doi.org/10.1007/s10826-016-0412-y>
- Schoppe-Sullivan, S. J., Schermerhorn, A. C., & Cummings, E. M. (2007).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Evaluation of the parenting process model. *Journal*

- of Marriage and Family*, 69(5), 1118-1134.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436.x>
- Spuhler, B. K., & Dew, J. (2019). Sound financial management and happiness: Economic pressur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mediator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0(2), 157-174.
<https://doi.org/10.1891/1052-3073.30.2.157>
- Whisman, M. A. (2001). Marital adjustment and outcome following treatments for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1), 125-129. <https://doi.org/10.1037/0022-006X.69.1.125>
- Whitbeck, L. B., Simons, R. L., Conger, R. D., Lorenz, F. O., Huck, S., & Elder Jr, G. H. (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353-363.
<https://doi.org/10.2307/2786847>